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4.27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지난주 코스피는 전쟁 전 수준(2/27일 6,244p)을 상회하며, 사상 최고치(4/24일 장중 6,557p)를 경신함 (6,476p, 주간 284p, +4.6%). 코스닥도 00/8월 이후 처음으로 1,200선을 회복함(1,204p, 주간 +2.9%). WTI 유가는 종전 협상을 둘러싼 긴장 속에 재차 상승함(94~95달러)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2차 협상 재개 기대와 Tech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함 (S&P500 +0.6%, 나스닥 +1.5%). 닛케이지수는 주중 6만선에 도달함 (주간 +2.1%).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(주간 +5.8%). 中 증시는 혼조를 보임 (주간 상해 +0.7%, 항셍 -0.7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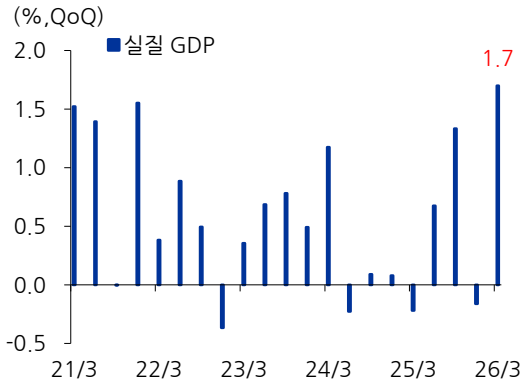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함. 그러나 주식시장은 지난 25/4월 '해방의 날' 충격과 올해 이란 전쟁(26/3월)을 겪으면서, 급락 후 V자 반등 패턴을 반복 학습함.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에 민감하지 않을 전망. 대신 주가 상승세가 주변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美 FOMC회의 (4/29~30일)
  ② 美 3월 PCE물가지수 (4/30일)
  ③ 日 BOJ 금융정책위원회 (4/27~28일)
  ④ 유 ECB 통화정책회의 (4/30일)
  ⑤ 美 1Q GDP(4/30일)
  ⑥ 韓 4월 수출(5/1일)
  ⑦ 유 4월 소비자물가지수(4/30일)
  ⑧ 美 아마존, 메타, MS, 애플 등 실적 발표

구분		4/24	1W	1M
KOSPI	↑	6,476	4.6%	16.6%
S&P500	↑	7,165	0.6%	9.3%
DOW	↓	49,231	-0.4%	6.7%
닛케이225	↑	59,716	2.1%	14.3%
상해종합	↑	4,080	0.7%	5.1%
원/달러(원)	↑	1,485	0.1%	-0.7%
엔/달러(엔)	↑	160	0.4%	0.7%
국고채3년(%)	↑	3.496	3.371	3.52
국고채10년(%)	↑	3.817	3.717	3.84
미국채10년(%)	↑	4.30	4.25	4.37
WTI(달러/배럴)	↑	94.4	12.6%	2.2%
한5-yrCDS(bp)	↓	29.1	-0.5	-6.0

CHART of the week

韓 경제성장률 추이



1 韓 1Q GDP +1.7%qoq 성장(4/23일)

반도체 효과, 2Q 0.2~0.3%로 둔화 예상

- 韓 1Q26 GDP는 전분기 대비 +1.7% 성장하며 시장 예상(+0.9%)을 크게 상회. 20년 3Q(+2.2%)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달성함(+3.6%yoy).
-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임. 반도체는 수출과 함께 설비투자(+4.8%)와 건설투자(+2.8%)까지 견인함. 반도체 성장 비중은 55%로 추정됨.
- 민간소비도 의류 등 소비가 늘면서 +0.5% 증가함. 성장 기여도는 순수출이 1.1%p, 내수가 0.6%p 기여하며 수출과 내수가 고르게 성장함.
- 반도체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함. 올해 경제 성장률은 2% 후반대로 예상됨. 단 중동 위험이 반영되는 2Q 성장률은 0.2~0.3%로 둔화될 전망.

2 美 워시 지명자 연준 의장 청문회 (4/21일)

독립성 강조, 당분간 동결 우위 예상

- 상원 청문회에서 차기 연준의장 후보 케빈 워시는 "정치적 압력"을 부인하며, 연준 독립성을 강조함.
- 워시 지명자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플레 없이 성장이 가능하며, 금리를 크게 올릴 필요성이 낮다고 밝힘. 연준 자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부연함.
- 흥미로운 점은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경로를 지나치게 시사하는 것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점임.
-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인준이 될 전망.
- 이란 전쟁 영향을 감안할 때 중립 근처로 인식되고 있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워 보임.

3 SK하이닉스 1Q 영업이익 37조원 (4/22일)

놀라운 영업이익률, 반도체 이익 상향 지속

- SK하이닉스는 26년 1Q 동안 매출액은 52.5조원(+198%yoy), 영업이익은 37.6조원(+406%yoy)을 기록함. 영업이익은 지난해 4Q (19.2조원)의 2배로, 4개 분기 연속 신기록임.
-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71.5%에 달한 점임. 이번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세계 Top 수준임 (마이크론 67.6%, 엔비디아 65%, TSMC 58.1%, 삼성전자 43%).
- 반도체 장기공급 계약이 늘어남. 과거에 비해 반도체 하강 국면은 완만할 가능성이 높음.
-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은 518조원까지 상향됨 (내년 636조원). 국내 증시 하단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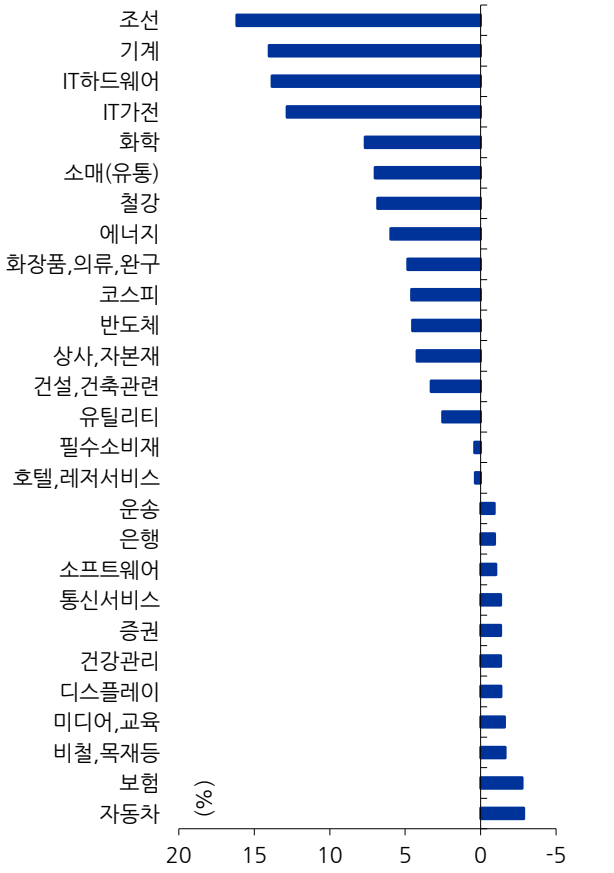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4/20~24일)

1Q GDP 서프라이즈, 인상 우려로 약세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497%(+12.6bp), 10년물 금리 3.817%(+10.0bp)마감.
- 마이란 협상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1Q 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+1.7%로 예상치 대폭 상회하며 금리 상승.
- 전쟁 발 성장 우려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에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인식에 금리 상승폭 확대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4/24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4/27 ~ 5/1)

美 FOMC회의 (4/29~30일) → "higher for longer" 고착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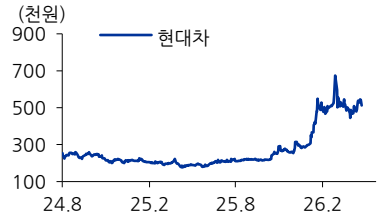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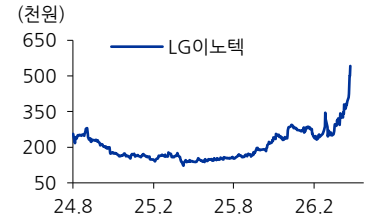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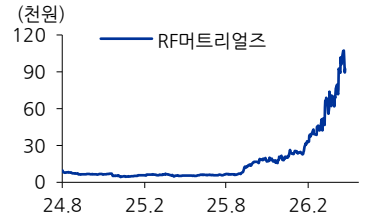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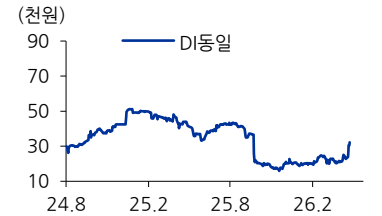
- 美 4월 FOMC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대 인플레 반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(3.5~3.75%)
- 연초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소멸, 정책 기조는 "higher for longer"로 다시 고착화되는 흐름
- 美 3월 CPI는 +3.3%yoy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함. 4/30일 발표 예정인 3월 PCE 물가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3% 중반으로 예상됨. 반면 고용은 여전히 견조해 정책 완화 필요성을 약화시킴
- 결과적으로 연준은 성장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음
- 점도표(SEP)가 발표되지 않지만 성명문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조건은 상향될 것으로 예상

韓 4월 수출(5/1일) → '반도체' 중심의 호조 지속

- 韓 4월 1-20일 수출액은 +49%yoy 증가한 504억 달러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
-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5/1일 발표되는 4월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- 특히 반도체는 3월까지 모두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.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+139% 급증하며 1Q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견인함
- 4월 1-20일 반도체 수출액은 183억 달러(+182.5%)로 역대급 실적이 이어지고 있음. AI서버 확충에 필수적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동반 성장을 보임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/시장 이벤트
4/27 (월)	▪ 中 3월 공업기업이익(YTD) (P: +15.2%yoy)	▪ [실적발표] 韓 한화시스템, 한화오션
4/28 (화)	▪ 美 4월 CB 소비자기대지수 (C: 90.0pt, P: 91.8pt)	▪ BOJ 금융정책위원회(~28일) ▪ [실적발표] 韓 삼성SDI, HD현대일렉트릭
4/29 (수)	▪ 美 3월 내구재 주문 (C:+0.5%mom, P:-1.3%mom)	▪ 日 휴장(쇼와의 날) ▪ [실적발표] 韓 두산에너빌리티, 에코프로 美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메타, 퀄컴
4/30 (목)	▪ 美 3월 PCE물가지수 (C: +3.5%yoy, P: +2.8%yoy) ▪ 美 3월 근원 PCE물가지수 (C: +3.2%yoy, P: +3.0%yoy) ▪ 美 1분기 GDP (C: +1.4%qoq, P: +0.5%qoq) ▪ 유 1분기 GDP (P: +1.2%yoy) ▪ 유 4월 소비자물가지수 (P: +2.6%yoy) ▪ 中 4월 차이신 제조업 PMI (P: 50.8pt)	▪ 美 FOMC 회의(28~29일) ▪ ECB 통화정책회의 ▪ [실적발표] 韓 삼성전자, LG에너지솔루션 美 일라이릴리, 애플, 샌디스크
5/1 (금)	▪ 美 4월 ISM 제조업 PMI (C: 52.6pt, P: 52.7pt) ▪ 韓 4월 수출 (C: +47.6%yoy, P: +49.2%yoy)	▪ [실적발표] 美 액손모빌, 셰브론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자동차	현대차 (005380)	527,000 (4월 20일)	-2.7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75,231.2 / 187,819.3 / 194,776.3 영업이익 14,239.6 / 12,444.3 / 12,174.0 순이익 13,229.9 / 11,676.0 / 11,424.0 PER (배) 4.6 / 12.7 / 12.9	▪ 1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하나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, 2분기 실적 반등 ▪ 하반기 sdv 페이스카 공개, 로봇 실증 사업(rmac) 본격화 등 피지컬 AI 모멘텀 부각
에너지/인프라	두산에너빌리티 (034020)	111,000 (4월 20일)	+14.5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6,233.1 / 16,968.5 / 17,673.6 영업이익 1,017.6 / 887.8 / 1,091.7 순이익 394.7 / 373.7 / 531.9 PER (배) 101.0 / 461.1 / 244.3	▪ '26년부터 글로벌 대형원전 발주 본격화될 전망, SMR 파운드리로써 '28년 캐파 20기 달성하며 지속 성장 전망 ▪ GEV, 지멘스, 미쓰비시 가스터빈 수주잔고가 5년 이상 적체되어 동사 수혜 기대. '27년 이후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 효과까지 이어질 전망
IT/전기전자	LG이노텍 (011070)	409,500 (4월 20일)	+32.4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21,200.8 / 21,912.4 / 23,622.9 영업이익 706.0 / 711.0 / 959.0 순이익 449.3 / 470.2 / 629.5 PER (배) 8.5 / 27.4 / 20.4	▪ 2026년 FC BGA 가동률 50% 미만 수준. AI 가속기와 CPU 기판 병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 업체들 대비 여유있는 가동률로 인해 신규 수주 가능성 높다고 판단 ▪ 내년부터 FC BGA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빠른 가동률 개선을 기대
통신장비	RF머트리얼즈 (327260)	106,800 (4월 20일)	-13.6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44.5 / 60.2 / 92.9 영업이익 (1.5) / 6.7 / 13.9 순이익 (7.6) / 7.0 / 12.1 PER (배) - / 151.1 / 71.2	▪ 광통신 전방시장 성장. 몇 안되는 직접 양산 납품 기업 ▪ 루멘텀향 물량 고성장 전망 ▪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한 탑라인 체력 확장. 펌프 레이저에 이어 CPO 패키징 등 제품 라인업 확대
그린산업/ESG	DI동일 (001530)	21,400 (4월 6일)	+50.2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651.7 / 608.9 / 688.8 영업이익 7.8 / (1.0) / 12.3 순이익 2.5 / (9.7) / 11.7 PER (배) 766.3 / - / 57.4	▪ 알루미늄박 생산라인은 내년 4분기 추가 3개 라인 완공 예정. 대부분 LFP 배터리용 코팅박으로 생산될 것으로 추정 ▪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향후 동사의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규모